

이태원 사고 관련 지시사항

1 [10. 29.]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0/29) 서울 이태원 할로윈 행사에서 발생한 다수의 인명피해 사고를 보고받고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했습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는 피해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구급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경찰청, 지자체 등에서는 전국 일원에서 치뤄지고 있는 할로윈 행사가 질서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기 바랍니다.

2 [10. 30.]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서 발생한 다수의 인명피해 사고와 관련해 긴급 2차 지시를 내렸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해 응급의료팀(DMAT) 파견, 인근 병원의 응급병상 확보 등을 속히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은 피해 국민에 대한 신속한 구급 및 치료를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③ [10. 30.]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 오늘(10/30) 긴급 상황점검회의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 또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태영 서울소방본부장,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화상으로 연결해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최우선 사안은 환자 후송 및 구호이며 피해 국민의 신속한 의료기관 이송 및 치료"라고 강조한 뒤 "앰블런스 이동로를 확보하고 이를 위한 교통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바로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④ [10. 30.] 홍보수석 백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청장과의 전화 통화로 응급구조활동 요원이나 통제관을 제외한 인원은 사고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소개시킬 것을 지시하고, 중대본 긴급 상황점검회의-즉 서울정부종합청사, 서울청사라고 하죠, 상황실로 이동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자 신원, 즉 돌아가신 분의 신원을 신속히 파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에 이송된 환자의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가동시킬 것을 명했습니다.

5 [10.30.] 홍보수석 브리핑

- 먼저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 대통령실의 일원으로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과 무거운 마음을 느낍니다.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에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서 가족을 잃어 슬픔에 잠긴 유가족분들과 그리고 다친 부상자들을 한 분 한 분 각별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또 지금 신원이 확인된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젊은 청년분들도 많이 숨져서 부모된 심정으로 가슴 아파했습니다.
- 윤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발표는 국민께 정확하게 전해져야 한다면서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신속한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언론에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리라고 지시했습니다.
- 오늘 오전에 발표했습니다만 정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것을 윤 대통령은 지시했습니다.
- 모든 정부 부처 그리고 관공서에 조기를 게양할 것도 대통령의 당부와 명에 따른 것입니다.
- 대통령은 이어서 국가 애도 기간 선포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이 국민 애도에 한마음을 모으는 것은 물론 민간이라고 가급적 국가 애도 기간 중에는 행사와 축제를 자제하는 방안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할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 또 부상자분들 치료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신속한 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면서, 외국인 사망자 그리고 부상자 정보와 관련해 해당 주한 공관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경북 봉화의 광산 매물 사고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 현재 구조 상황을 점검한 뒤에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최선을 다해 구조 작업에 임해 달라”면서 국가가 단 한 분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⑥ [10.30.]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0.30.) 오후 이태원 사고의 신속한 수습 지원을 위해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 사고가 일어난 지 만 하루도 안 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수습과 후속 조치에 둔다는 오늘 오전 담화문 발표에 따른 조치입니다.
- 이를 통해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등 사고를 당한 분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용산구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상자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부상자의 치료와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7 [10.31.] 부대변인 브리핑(주례회동)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확대 주례회동을 열었습니다.
- 이날 확대 주례회동은 이태원 사고 수습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을 참여시켜 주례회동을 진행했습니다.
- 윤 대통령은 논의에 앞서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 또 “특히 꽃다운 나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미쳐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을 당해 너무나 비통하다”는 심경을 재차 밝혔습니다.
- 이에 윤 대통령은 “장례 지원과 부상자 의료 지원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면서 “유가족 등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특히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투명한 공개, 그리고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사고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 안전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행사의 주최자가 있으면 주최 측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에 검토와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최자가 없는 경우 선제적인 안전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지 않은 행사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 통제 조치를 실시하는 내용들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심폐 소생술을 비롯해 구급과 후송을 위해 애써주신 시민들, 의료진, 소방요원, 경찰관 등 위급한 상황에서도 귀감이 되어준 이태원의 영웅들께 고마움을 전하면서 슬픔을 함께 나눠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9 [11. 1.] 제4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 지난 주말 서울 한복판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대다수가 아들딸 같은 청년들인데 더욱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 부모님들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 거듭 강조하지만 국정의 최우선은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입니다.
- 관계 기관에서는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분 한 분 각별하게 챙겨드리고 유가족을 세심하게 살피드리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이 유사한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는 마련해야 합니다.
- 국가 애도 기간에 온 국민과 사회 모든 분야가 주요 일정을 취소하고 행사를 자제하는 등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비롯해 구호와 후송에 애써 주신 시민들, 소방관·경찰관 등 제복 입은 공직자들, DMAT 의료진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 그리고 슬픔을 함께 나눠 주신 모든 국민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주석 등 세계 각국 정상들이 깊은 애도의 뜻을 보내 주셨습니다.
- 세계 각국 정상과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위로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과 다름없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산업안전사고, 아울렛 지하주차장 화재, 아연 광산 매몰사고, 항공기 불시착 등 각종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관성적인 대응이나 형식적인 점검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 사고와 재난에 대한 대응은 철저하고 용의주도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 장관들께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는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crowd management)’라는 인파 사고의 관리 통제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 우리 사회는 아직 인파 관리 또는 군중 관리라고 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드론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 활용해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합니다.
- 이번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군중이 운집하는 경기장, 공연장 등에 대해서도 확실한 인파 관리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조만간 관계 부처 장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 관계 부처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사회가 슬픔과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주십시오.
-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치료 중인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지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 [11.3.] 부대변인 현안 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합동분향소 조문을 마친 뒤 참모들을 불러,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유가족과 부상 당한 분들을 곁에서 도울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 총리실 내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질 "이태원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사망자 장례와 부상자 치료, 구호금 지급, 심리치료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원스톱으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사고 트라우마 극복과 심리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유가족과 부상당한 분들, 그리고 목격자와 현장 대응 인력에 대한 치료는 물론이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국민께도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 또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저해 요소를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 확실하게 고쳐나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세우는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 때 지시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오는 7일 월요일 오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1 [11. 7.]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말씀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 믿을 수 없는 참사 앞에서 여전히 황망하고 가슴이 아팍니다만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재난 안전 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 산업재해, 재난재해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 다른 기회에 이러한 점검 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 이번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다중에게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협에 대한 안전관리로서 인파 관리, 긴급구조 시스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 재난 대응의 기본은 선제적 대비와 피해의 최소화입니다.
 -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행 안전진단처럼 특정 시설이나 대상뿐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재난 대응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상황이 바로 인파입니다.

-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인파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차로를 차단하는 등으로 인파의 점유공간, 통행공간을 넓혀서 인파의 밀집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 지하철, 쇼핑몰, 경기장, 공연장, 도로 등 인파 운집 장소와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 또 아무리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완벽한 매뉴얼을 준비했더라도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전달, 공유되지 않는다면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실행될 수 없고, 이러한 비극은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 정부는 사고 수습과 철저한 진상 규명, 안전관리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 우리 사회가 아픔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치료 중인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